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투자전략/시황 Analyst 한지영, RA 유지운



키움증권

## 미 증시, 미-이란 협상 노이즈에도, 반도체, M7 등 테크주 강세로 상승

###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

30일(화) 미국 증시는 미국과 이란의 협상 재개를 둘러싼 엇갈린 뉴스플로우, 일부 연준 위원들의 매파적인 발언에도, 마이크론(+0.8%), 샌디스크(+10.9%) 등 반도체 모멘텀이 지속된 가운데, 엔비디아(+2.6%), 알파벳(+0.6%), 애플(+2.7%) 등 M7주들도 월말 리밸런싱 수급 효과로 동반 강세를 보이면서 상승(다우 +0.3%, S&P500 +0.8%, 나스닥 +1.5%,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3.9%).

전일 이란 측에서 미국과 어떤 협상을 진행하고 있지 않다고 언급하면서 종전 불확실성이 재차 부각됐으며,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도 인플레이션을 이유로 금리 인상을 주장하는 등 매크로상 부담 요인이 잔존하고 있는 모습. 7월에도 미국과 이란의 협상은 진행될 예정이며 미국 5월 고용(2일), 5월 CPI(14일), 7월 FOMC(30일) 등 주요 매크로 이벤트가 대기하고 있는 상황. 그 과정에서 유가 및 금리 불확실성이 증시에 제약적인 환경을 조성할 소지가 있음.

이렇게 전쟁 및 에너지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완전히 소멸되지는 않았지만, 이미 주식시장에서도 3월 전쟁 발발 이후 수차례 겪었던 주가 조정을 통해 소화해오고 있다는 점을 되새겨볼 필요. 전일 협상 불안 소식에도 WTI가 70달러를 유지하고 있으며, 1, 5년 기대인플레이션도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 따라서, 미국 경제 지표 이벤트가 만들어내는 매크로 불확실성을 계속 안고 가야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적어도 전쟁 불확실성은 대응 전략에 있어서 후순위로 두고 것이 적절.

전일 국내 증시는 미국 반도체주들의 장중 급반등 성공 소식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주도주들이 강세를 보였으나, 직전일 급등했던 이차전지, 바이오주들의 차익실현 물량, 분기 및 반기 리밸런싱 여파 등으로 장 후반 상승폭을 일부 반납하면서 혼조세로 마감(코스피 +1.0%, 코스닥 -0.5%)

금일에는 분기 및 반기말 리밸런싱 이벤트 종료 속 미국 반도체 및 M7주 강세 효과, 코스피200 야간선물 반등소식(+1.6%) 등이 강세 흐름을 만들어 낼 전망이다. 또한 장 시작 전 발표되는 한국의 6월 수출(컨센 +60.7%, YoY) 및 반도체(5월 +169%YOY) 등 품목별 수출 실적이 장중 관련 업종의 주가 상승 탄력에 차별성을 부여할 것으로 판단.

지난 6월 한달 동안 코스피는 보합(5월말 대비 -67pt) 수준으로 마감하면서, 지난 5월 폭등(+28.4%)에 따른 속도조절, 숨고르기 성격의 흐름을 보였던 상황. 하지만 어디까지나 표면상 결과일뿐, 서킷브레이커 3회, 사이드카 9회가 발동됐으며, 일간 수익률 편차가 -10% ~ +8%까지 확대되는 등 역대급 변동성 장세를 경험했던 한달이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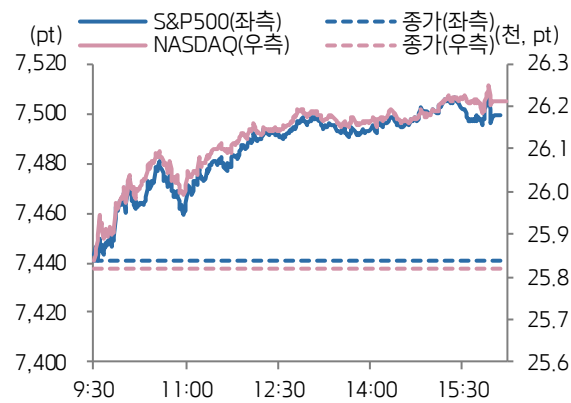
수급측면에서 눈에 띄었던 주체는 외국인으로, 이들은 코스피에서 6월 48조원(5월 -44조원) 순매도를 기록. 이들의 상반기 코스피 순매도 금액은 148조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으며, 이는 금융위기, 코로나 팬데믹 시절의 2~3배 이상을 상회했던 실정. 그 가운데 보유주식 시가평가액 기준으로 산출한 코스피 지분율이 연초 35%대에서 현재 40.0%대로 상승한 점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차익실현이 더 나올 여지를 부여(상반기 148조원 중 134조원이 반도체).

이처럼 올해 외국인 순매도는 절대 금액이나 페이스상으로 역대급인 것은 사실이지만, 순매도의 대부분이 반도체 단일 업종에 집중된 차익실현 성격이기에, 과거 위기 시기의 광범위 청산과는 결이 다르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 또 5~6월 외국인의 매도세에 추가적인 명분을 부여했던, 유가, 금리 부담이 완화되고 있다는 점도 상기해볼 시점.

금일부터 시작되는 7월 한달도 일차적으로는 그리 만만하지 않은 달일 수가 있음. 현재 90pt대를 지속 상회 중인 VKOSPI 레벨 다운도 쉽지 않은 환경이기에, 최근처럼 변동성 확대 압력에 직면할 수 있다고 판단. 하지만 7월에는 2분기 실적시즌이 대기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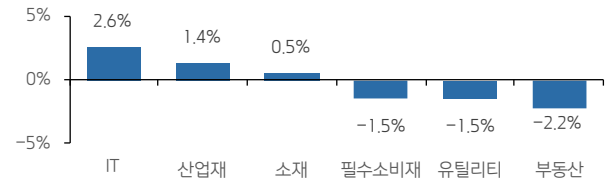
이는 반도체 포함 주력 업종을 중심으로 한 코스피 이익 모멘텀이 재생성되면서 7월 전체에 걸쳐 증시 레벨업을 실현해 나갈 수 있음을 시사(코스피 2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5월말 222조원에서 6월말 225조원으로 상향, 26년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5월말 910조원에서 6월말 940조원으로 상향). 상기 언급했듯이, 이전보다 매크로, 지정학 등 대외 환경이 호전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 시, 쓸림현상의 빈도수도 6월보다 덜해질 가능성을 열고 갈 필요.

S&P500 & NA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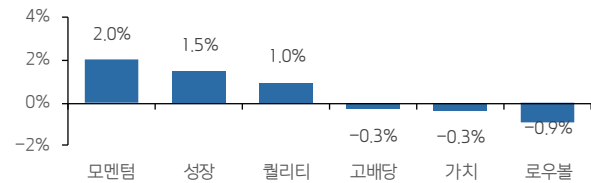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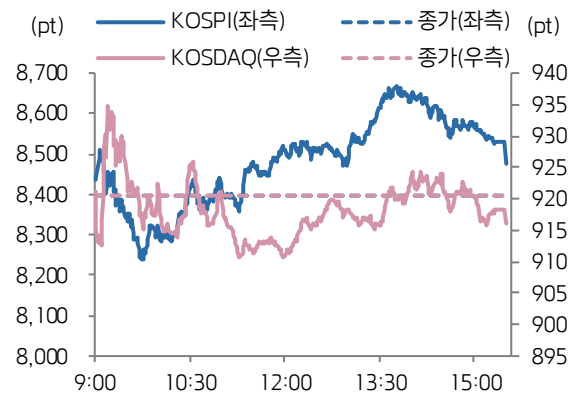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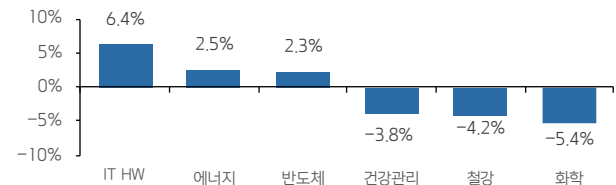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KOSPI & KO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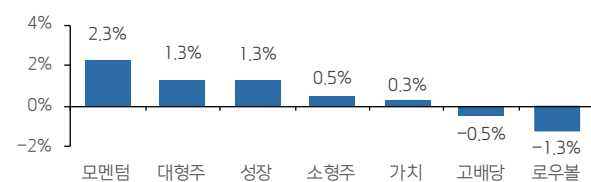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 주요 종목

종목	증가	DTD(%)	YTD(%)	종목	증가	DTD(%)	YTD(%)
애플	289.36	+2.7%	+6.63%	GM	77.08	-0.34%	-4.78%
마이크로소프트	373.02	+1.21%	-22.53%	일라이릴리	1,199.43	-2.48%	+11.99%
알파벳	357.37	+1.05%	+14.32%	월마트	113.26	-1.17%	+2.06%
메타	563.29	+0.12%	-14.51%	JP모건	327.33	-0.63%	+2.57%
아마존	238.34	-0.75%	+3.26%	엑손모빌	136.72	+0.49%	+15.14%
테슬라	420.60	+2.13%	-6.48%	세브론	165.76	-1.61%	+10.83%
엔비디아	200.09	+2.63%	+7.42%	제너럴일렉트릭	113.26	-1.2%	+2.1%
브로드컴	377.75	+1.42%	+9.55%	캐터필러	1,064.90	+3.07%	+86.68%
AMD	580.91	+7.68%	+171.25%	보잉	216.47	+0.83%	-0.3%
마이크론	1,154.29	+0.79%	+304.6%	넥스트에라	87.77	-1%	+10.9%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

### 주요 지수

주식시장				외환시장				
지수	가격	DTD(%)	YTD(%)	지수	가격	DTD(%)	YTD(%)	
코스피	8,476.48	+0.97%	+101.14%	USD/KRW	1,549.50	+0.42%	+7.64%	
코스피200	1,370.73	+1.34%	+126.2%	달러 지수	101.16	+0.06%	+2.89%	
코스닥	916.18	-0.48%	-1%	EUR/USD	1.14	+0%	-2.76%	
코스닥150	1,662.95	-0.61%	+7.47%	USD/CNH	6.79	-0.13%	-2.64%	
S&P500	7,499.36	+0.79%	+9.55%	USD/JPY	162.55	+0.38%	+3.73%	
NASDAQ	26,213.72	+1.52%	+12.79%	채권시장		가격	DTD(bp)	YTD(bp)
다우	52,319.20	+0.26%	+8.85%	국고채 3년	3.697	-3.8bp	+74.6bp	
VIX	16.45	-6.8%	+10.03%	국고채 10년	4.070	-7bp	+68.5bp	
러셀2000	3,024.37	+0.46%	+21.86%	미국 국채 2년	4.172	+6.8bp	+69.9bp	
필라. 반도체	14,246.96	+3.92%	+101.14%	미국 국채 10년	4.465	+9.1bp	+29.8bp	
다우 운송	21,749.79	-0.8%	+25.31%	미국 국채 30년	4.951	+8.8bp	+10.8bp	
상해종합	4,094.40	+0.5%	+3.16%	독일 국채 10년	2.860	+0.3bp	+0.5bp	
항생 H	7,558.30	-0.62%	-15.21%	원자재 시장		가격	DTD(%)	YTD(%)
인도 SENSEX	76,478.67	-0.33%	-10.26%	WTI	69.50	-1.77%	+21.84%	
유럽, ETFs		가격	DTD(%)	YTD(%)	브렌트유	72.92	-0.31%	+19.84%
Eurostoxx50	6,328.09	+1.55%	+9.27%	금	4,038.50	-0.01%	-9.05%	
MSCI 전세계 지수	1,120.46	+0.76%	+10.43%	은	59.48	+2.24%	-15.76%	
MSCI DM 지수	4,790.47	+0.97%	+8.13%	구리	619.25	+1.56%	+8.98%	
MSCI EM 지수	1,706.93	+0.03%	+21.54%	BDI	2,490.00	-1.35%	+32.66%	
MSCI 한국 ETF	201.90	+2.23%	+107.67%	옥수수	436.00	+1.4%	-5.32%	
디지털화폐		가격	DTD(%)	YTD(%)	밀	589.25	+1.64%	+7.97%
비트코인	58,642.15	-2.61%	-33.09%	대두	1,143.75	+0.42%	+7.44%	
이더리움	1,573.83	-2.58%	-47.15%	커피	296.45	+6.71%	-7.4%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

---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6월 30일 현재 상기에 언급된 종목들의 발행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동 자료상에 언급된 기업들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